

# 책으로 짓는 건축예술의 꿈

'99년 '건축문화의 해' 맞아 관련서 다양



**'99 건축문화의 해**  
THE YEAR OF ARCHITECTURE

'건축문화의 해' 공식 시그니처.

올해는 '건축문화의 해'다. '조직위원회'는 '한국현대건축 100년전', '내가 가꾼 우리마을 콘테스트' 등의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건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출판계 역시 책으로 짓는 건축예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관련서를 출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 건축의 멋과 역사 이해

그동안 출판된 도서는 전문가를 위한 도서와 건축학도를 위한 교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일반독자를 위한 책도 늘기 시작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긴 일반독자들의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이 잦아지면서 세계건축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져 《건축예찬》, 《세계건축기행》 같은 책들이 수준 높은 해외건축의 예술적 경지를 보여줬다.

서구의 현대 건축술은 우리의 건축술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우리는 지금 거의 모든 시간을 서구적 건축술로 지은 건축물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증시한 서구 건축술의 남용으로 폐해도 많다. 대표적인 사건이 부의 상징으로 여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다.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건축이론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욕구를 채워준 이론서로 《매일매일 자라기》, 《우경국의 건축 이야기》 등이 꼽힌다.

90년대 중반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번지면서, 전통 건축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기 시작했다. 우리 건축의 멋과 역사를 함께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이근 책들도 속속 출판됐다. 《한국 전통건축 1~7》, 《우리 문화 우리 역사 답사

기》 같은 책들이 꼽힌다. 우리 건축을 주제별로 다룬 《서원》, 《한국의 전통 초기》 등도 나왔다. 우리 고건축을 소개한 책도 상당수 선보였다.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친화적인 건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전원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고조되면서, 자연친화적 건축을 다룬 책들도 많이 나왔다. 대개는 전원주택, 통나무집짓기 등을 소개하고 있다.

## 흥미와 정보 함께 담은 책 필요

건축 관련도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매출은 극히 부진하다.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로 건축 관련 종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교보문고의 한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풀리고 있다. 올 하반기로 가면 상승곡선을 긋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까지도 일반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축가 김진에 박사는 "건축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언어·어휘·표현방식이 단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쉽게 풀어쓸 저자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쉬운 언어로 호기심과 정보를 동시에 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독자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출판된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자》,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들》 등은 꾸준히 팔리고 있다. 이 책들의 특징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풀어썼다는 점.

하지만 아직도 채워야 할 부분이 많다. 일 년이면 수천 수만명의 학생이 건축의 문과 사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내서가 없다. 《웬 겨란 낙하?》 정도가 고작.

## 건축문화 관련서들

분 야	제 목	저·역자	출 판 사
전 통 건 축	건축문화유산대요	강봉진	기문사
	서원	이상해	열화당
	소·쇄·원, 긴 담에 걸친 노래	정기호 외	태림문화사
	우리 문화 우리 역사 답사기	신영훈	대한교과서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들	류경수	대원사
	우리 옛 집 이야기	박영순	열화당
	종묘	배병우	삼성문화재단
	한국 건축 어디로 가고 있나	원정수	미건사
	한국 건축의 장	주남철	일지사
	한국의 건축	김봉열	공간사
세 계 건 축	20세기 건축의 경향들	우드 콜드만/이선구	발언
	GO GO 건축이야기	송기용	여행문화센터
	건축예찬	지오 폰티/김원	열화당
	건축은 삶과 등지	김유봉	기문당
	세계건축기행	김석철	창작과비평사
	엔지니어 이미지	피터 라이스/이수권	청람
	장소의 혼	크리스찬 N. 슬츠/민경호 외	태림문화사
	재미있는 건축이야기	루이스 헬만/임종엽	국제
	천년의 도시 천년의 건축	김석철	해냄
	하늘 아래 도시 땅 위의 건축 1·2	김정동	가람기획
해방의 건축	이종건	발언	
현대건축의 거장들	편역	현대미술관회	
현대건축의 기수들	편역	현대미술관회	
건 축 이 론	건축가 김기석 집이야기 전집 1~4	김기석	살림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자	서련	효형출판
	건축되는 도시, 도시같은 건축	윤승중	간행미디어
	건축은 중요한가?	김진애	서울포럼
	구들	최영택	고려서적
	나의 테마는 사람 나의 프로젝트는 세계	김진애	김영사
	매일매일 자라기	김진애	서울포럼
	빈자의 미학	승효상	미건사
	아홉 건축가의 아홉 무늬	이윤하	현대건축사
	우경국의 건축 이야기	우경국	현대건축사
웬 겨란 낙하?	신유진	국제	
정보화사회의 건축가	켄 샌더스/조성홍 외	안그라픽스	
좋은 길은 좁을수록 좋고 나쁜 길은 넓을수록 좋다	김수근	공간사	

외국인을 위한 '우리 건축 화보집은 정부의 간행물 정도로 그치고 있다. 최근 삼성문화재단이 사진집 《종묘》 등을 펴내기는 했지만,

만, 아직도 부족하다. 21세기 건축문화를 짚어보는 책도 전무하다.

— 오완진 기자